

제목: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Title: Faith Without Deeds Is Dead Faith

“<야고보서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James 2:26>: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deeds is dead.”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Death means that the spirit has left the body.

As a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faith without deeds is also dead.

살아 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 있는 영혼은 주님과 교통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A living person breathes, and a living soul communicates with the Lord.

When a person sins and does not repent, fellowship with God is cut off.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회개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A wall of sin blocks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that person.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oul, and repentant prayer revives a dead soul.

참된 회개는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얻기 위해 예수 믿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True repentance is to repent while obeying with all the body and heart.

Those who believe in Jesus only to gain earthly things belong to Satan.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할 때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Those who believe in Jesus to enter heaven belong to God.
Everyone is a sinner. When we repent with fruit worthy of
repentance, we are forgiven and enter heaven.

순종과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주님과 소통이 끊어진 믿음입니다.

Attending church by habit without obedience and repentance is dead faith.

Dead faith is faith cut off from communication with the Lord.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허탈합니다.

그때 쪽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If a farmer sows seed in spring and tends it in summer, but finds no fruit in autumn, he is deeply disappointed.

Then the chaff is burned in the fire.

주님도 사랑의 열매 없는 교인이 지옥에 떨어질 때 허탈해하십니다.

Likewise, the Lord is grieved when churchgoers without the fruit of love fall into hell.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When someone first believes in Jesus, simply attending church can please the Lord.

But after time passes and the word is learned, one must repent for not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Striving not to repeat the same sin is fruit worthy of repentance.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 교리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신학자와 목사들이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Human doctrine that does not follow God's will says repentance and obedience are unnecessary.

Theologians and pastors deceived by Satan created doctrines different from Scripture.

사람들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인간 교리를 더 좋아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순종하고 회개하기 싫은 교인들은 인간 교리에 달라붙습니다.

People prefer human doctrine over the Bible because it is easier. Churchgoers who want heaven but hate obedience and repentance cling to human doctrine.

성경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사탄의 쇠고랑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They close their ears to Scripture and to the voice of conscience.
They are chained by Satan and dragged toward hell.

인간 교리에 깊이 빠진 자들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들어도 코웃음 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야 사탄에게 속았다고 이를 갈며 회개합니다.

Those deeply trapped in human doctrine laugh at the message
that one must repent to enter heaven.

But in hell they gnash their teeth and repent, realizing that Satan
deceived them.

지옥에서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Repentance in hell is useless.

“<야고보서 2:23-2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James 2:23-24>: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he does, and not by faith
alone.”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Abraham was counted righteous by faith.

But his faith was faith accompanied by deeds.

하나님께서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떼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God commanded him to offer his only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A burnt offering was a sacrifice cut into pieces and burned with fire.

짐승에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자기 아들에게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직전, 주님은 그의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It was difficult even with an animal, yet he had to do it to his own son.

Just before Abraham lifted the knife, the Lord saw his firm faith and stopped him.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으로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Abraham had already offered his son in his heart.

He did not believe only inwardly, but proved his faith through action.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fore the Lord recognized his faith.

The same is true today.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If we believe God's word in our hearts, we must practice that word in daily life.

Then the Lord recognizes our faith.

온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Obey with all your strength.

And thoroughly repent of your disobedience.

이런 실천이 없으면 아직 천국 갈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Without this practice, a person does not yet have the faith that enters heaven.

아브라함이 믿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When Abraham resolved to believe, God counted it as righteousness.

No one is righteous in every matter at all times.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둘 때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But when we place God's word first, the Lord counts that as righteousness.

In life we make many mistakes.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순종하려는 의지를 보십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But the Lord sees the center of our hearts and our will to obey. Even with little Bible knowledge, one who humbles himself and obeys is saved.

“<야고보서 2:21-22>: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James 2:21-22>: When Abraham offered Isaac on the altar, he wa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he did. Faith works together with deeds, and faith is made complete by deeds.”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의 믿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When Abraham received God's command and offered Isaac on the altar, his faith was recognized.

Receiving a command alone is not faith.

그 명령을 실천했을 때 축복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과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When he practiced that command, it became faith that receives blessing and salvation.

Practicing the Lord's command and repenting when we disobey is saving faith.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Because we obe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t is the fruit of the Spirit.

Because it practices love, it is the fruit of love.

“<누가복음 6: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Luke 6:46>: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Many call, “Lord, Lord,” but very few practice the Lord’s word. Praising the Lord with our lips is important.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진실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 찬양으로 끝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But more important is living according to the words we sing and repenting sincerely.

If praise ends with the lips, it is like building a castle on sand.

“<누가복음 6:49>: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타류가 부딪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Luke 6:49>: The one who hears and does not put the word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When the torrent strikes, that house collapses and its destruction is complete.”

기초 없는 집은 홍수에 무너집니다.

홍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A house without a foundation collapses in a flood.

A flood comes to everyone.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아직 검증된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Faith that has not passed through trials is not yet tested faith.

When trials come, wheat and chaff are separated.

홍수에 무너지면 쭉정이고, 견디면 알곡입니다.

환난의 바람을 견디는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If one collapses in the flood, he is chaff; if he endures, he is wheat.

The saint who endures the winds of trial enters the storehouse of heaven.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바람 풍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 믿음과 쭉정이가 믿음이 섞여 있습니다.

On the threshing floor there is a winnowing fan to separate wheat from chaff.

In the church, wheat-like faith and chaff-like faith are mixed together.

여러 가지 환난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람 풍로입니다.

여러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알곡 신자입니다.

Many kinds of trials are the winnowing fan the Lord uses.

Those who hold to the word until the end during many hardships are wheat-like believers.

“왜 나만 이래?”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불합격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 양다리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알곡이 됩니다.

Those who complain, “Why only me?” fail the test.

Those who abandon double-mindedness and return fully to the Lord through suffering become wheat.

“<야고보서 2:16-17>: 가난한 자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James 2:16-17>: If someone says to a poor person, ‘Go in peace; keep warm and well fed,’ but gives nothing for the body,

what good is it? In the same way, faith without deeds is dead by itself.”

믿는 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자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주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Believers may praise earnestly, learn the word, and attend many services.

But if they do not practice that word in daily life, what value do those services have before the Lord?

믿음의 형식만 갖추지 말고 내용을 갖추십시오.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Do not have only the form of faith; have the substance of faith.

The substance of faith is obeying the Lord’s word and repenting of sin.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고치려고 애쓸 때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The one who disobeys and does not repent has dead faith.

Even after sinning, when one repents and strives to correct it, dead faith comes alive.

“<야고보서 2:18>: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James 2:18>: Show me your faith without deed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deeds.”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기 위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Do not boast that you have lived a religious life for a long time.

To enter heaven, examine how much your life practices the Lord's word.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Keeping Sunday and giving much offering may be good.

But more important is whether the heart is clean before the Lord.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Is the heart full of greed?

Are you holding resentment and hatred toward someone?

겉은 깨끗하지만 마음이 더럽다면 율법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려 애쓰는 교인을 율법주의자로 보지 마십시오.

If the outside is clean but the heart is dirty, that is living as a
legalist.

Do not call a believer who strives to obey a legalist.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A legalist is one who obeys outwardly but not in the heart.

Living a religious life to be seen by people rather than God is
legalism.

몸과 마음이 함께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이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When body and heart obey together, that is true obedience and
the faith that enters heaven.

No one is perfect.

그러므로 탐욕과 미움과 완악한 마음부터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Therefore repent first of greed, hatred, and a stubborn heart, and
strive to obey.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사탄에게 속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Churchgoers who live their faith according to fleshly desires have
faith that belongs to Satan.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govern your heart and life.

The fruit of the Spirit is the fruit of love.

모든 일의 동기를 사랑으로 하십시오.

남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며, 악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Let love be the motive in all things.

Forgiving others and doing good is love, and abandoning evil is
love.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When the Holy Spirit points out sin, do not make excuses; repent immediately.

If you do not repent, discipline comes.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When discipline comes, do not blame God; turn from sin.

“<야고보서 2:19-20>: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니라.”

“<James 2:19-20>: Do you believe that God is one?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dder. Faith without deeds is
useless.”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Demons know that God is one and tremble, but they do not obey.
Therefore they are not saved.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If someone says he believes in God but does not obey or repent, his faith is no different from the faith of demons.

“<로마서 4:20-2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Romans 4:20-22>: Abraham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God’s promise, but was strengthened in faith and gave glory to God. He was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promised, and this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All descendants of Adam are born with a sinful nature.

By our own power we cannot fulfill the Lord’s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Therefore we must trust God’s promise and help, and strive to obey.

When we strive, even though we are still lacking, the Lord regards us as righteous.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Those who rely on the Holy Spirit and strive to obey enter heaven.

This is because they have living faith.

자포자기하거나 겉만 꾸미는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움직이면 주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A faith that gives up or only decorates the outside is not faith in God.

Even if wisdom and ability are lacking, when we rely on the Lord and move, His power accomplishes salvation.

순종을 싫어하여 인간 교리 아래 쉬는 자에게는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Those who hate obedience and rest under human doctrine will face fiery judgment.

“<로마서 4:23-24>: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라.”

“<Romans 4:23-24>: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not

written for Abraham alone. They were also written 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제단에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Today we are not commanded to offer our children on an altar like Abraham.

The command given to us is to believe in the one God and obey His word.

그 말씀은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That word is not complicated theology, but forgiving neighbors and doing good.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버려야 합니다.

A believer in Jesus does not live only for himself.

Jesus hates sin, so we must also abandon sin.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과 반대되는 악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Jesus forgives us, so we must forgive our neighbors.

The God of love deeply hates evil that opposes love.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수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It is false to say that because God is love, we may live in sin.

Christians who do not repent live as enemie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으십시오. 아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means to obey the words of
Jesus.

Read Matthew chapters 5 through 7. The words of the Son are
recorded there.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인간들의 아들과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 is not like the sons of human beings.

The Son is Jehovah God who came into the world in human flesh.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Jesus is the invisible God who came so that He could be seen.

Do not serve any god other than Jesus.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말과 행위는 죄입니다.

예수님 밖에 무슨 행복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Every word and act outside the words of Jesus is sin.

What happiness and peace exist outside Jesus?

예수를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저주와 질병과 지옥뿐입니다.

Before knowing Jesus, one may have lived as one pleased, but
after knowing Him, one must not live that way.

The wages of sin are only curse, disease, and hell.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생명을 보장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We must live for God's righteousness and God's kingdom.

When we live this way, the Lord protects our life and supplies all we need.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죄가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When discomfort remains, it is a sign that there is still sin to repent of.

“<사무엘상 15:22>: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1 Samuel 15:22>: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e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뜻합니다.

많은 제사나 예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Old Testament sacrifices point to New Testament worship.

The Lord desires obedience to His word more than many sacrifices or services.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The heart of worship is gratitude for the Lord's grace.

The one who is truly thankful obeys the Lord's word.

불순종했을 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When people disobeyed in the Old Testament, they received forgiveness through the blood of a lamb.

In the New Testament, forgiveness comes through the blood of Jesus.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느 시대에도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But those who do not repent receive no forgiveness in any age.

One does not enter heaven by one act of repentance alone.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Until the moment of death, if one sins, one must repent.

Where can a person go while carrying sin? One must repent.

“<로마서 6:12-13>: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Romans 6:12-13>: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wickedness, but offer yourselves to Go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Believers in Jesus must not use their bodies as instruments of sin.
Each day, through obedience, they must offer themselves to the Lor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그러나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 가운데 오래 살면 뿌리가 내려 주님께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But if they sin, they must repent immediately and return to the Lord.

If one lives in sin for a long time, sin takes root and it becomes hard to return to the Lord.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10년 된 소나무보다 1년 된 소나무가 뽑기 쉽습니다.

The sooner repentance comes, the better.

A one-year-old pine is easier to pull up than a ten-year-old pine.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몸을 사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Even if one attends church, if he does not repent, he offers his body to Satan as an instrument of wickedness.

Through repentance, he must be forgiven and become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again.

의의 병기로 쓰인 자는 천국으로 가고, 죄의 병기로 쓰인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Those use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go to heaven; those used as instruments of sin go to hell.

“<로마서 6:17-18>: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였으나,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그 결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Romans 6:17-18>: You used to be slaves to sin, but you obeyed from your heart the pattern of teaching given to you. As a result, you were set free from sin and became slaves to righteousness.”

성경의 교훈은 창조주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축복받고 천국에 갑니다.

The teaching of Scripture is that the Creator bore human sin and died.

Whoever repents is forgiven, blessed, and enters heaven.

이보다 복된 소식이 없으므로 복음입니다.

복잡한 신학은 구원에 필요 없습니다.

There is no better news than this; therefore it is the gospel.

Complicated theology is not necessary for salvation.

창조주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창조주의 질서에
순복하십시오.

그 질서를 거역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Believe that the Creator is the only God, and submit to the
Creator's order.

If you have rebelled against that order,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로마서 6:16>: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Romans 6:16>: When you offer yourselves to someone as
obedient slaves, you are slaves of the one you obey. Slavery to
sin leads to death, but obedience leads to righteousness.”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Obey the Lord's word with all your body and heart.

When you disobey, do not make excuses; repent.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When sin is not repented of, a person lives as a slave of sin.

The command of Jesus is love.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쓰며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Everything not done in love is sin and must be repented of.

When we strive to love and repent, there is no sin that cannot be forgiven.

“<로마서 6:14-15>: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Romans 6:14-15>: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under grace? By no means.”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정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By the grace of the cross, we are not under the law of condemnation.

But this does not mean we may sin as we please.

죄에서 구속받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갑니다.

열심히 순종하며 부족함을 회개할 때 항상 용서받습니다.

If one redeemed from sin does not repent, he enters again under the power of death.

When we strive to obey and repent of our shortcomings, we are always forgiven.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속받은 것입니다.

When we believe in Jesus as Savior and repent, we enter the grace of forgiveness.

This is being redeemed from sin.

구속받은 자가 회개의 삶을 중지하면 그 구속함도 취소됩니다.
회개의 삶을 지속할 때 구속함은 유효하고,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If one who has been redeemed stops living a life of repentance,
that redemption is canceled.

When the life of repentance continues, redemption remains
effective, and at death one enters heaven.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땅에 있는 자는 아직 영원한 구원을 완성받은 것이 아닙니다.

Salvation is completed when one enters heaven.

No one on this earth has yet completed eternal salvation.

성공적으로 회개의 삶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조심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When one successfully lives a life of repentance and enters
heaven, eternal salvation is received.

While under grace, one must live carefully in faith.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많이 지으라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Jesus shed His blood to forgive our sins.

He did not shed His blood so that we would sin more.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Striving not to repeat the same sin is the proper response to Jesus' grace.

“<로마서 6:22-23>: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Romans 6:22-23>: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of God, the fruit you reap leads to holiness, and the result is eternal life.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Those who follow the Lord's will through repentance and obedience bear holy fruit.

The end of that road is eternal life and heaven.

그러나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교인은 저주와 질병 속에 삽니다.

But a religious life that sins and does not repent enters again under Satan's power.

A churchgoer captured by Satan lives under curse and disease.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을 버리고, 순종과 회개의 산 믿음을 가지십시오.

He bears the fruit of death and finally goes to hell.

Therefore abandon faith without deeds, and have living faith of obedience and repentance.